

통신장비

통신 이찬영
6167 / cylee@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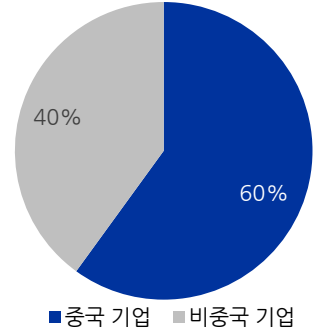
중국산 광트랜시버 규제, 복잡한 셈법

- “ Reuters에 따르면 미국 FCC는 국가안보 위험을 이유로 중국산 신규 데이터센터용 광트랜시버의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 올해 중 발표를 목표로 하나 아직 초안 단계로 수정 또는 철회 가능성도 존재
- “ 다만 중국산 신규 모델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강경안이 그대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중국 업체의 미국 데이터센터용 고속 광모듈 공급 비중은 높은 반면 비중국 업체의 대체 역량은 부족함. 규제 강행 시 미국 하이퍼스케일러의 조달비용 상승과 AI 클러스터 구축 지연 가능성이 높음
- “ 또한 광통신 공급망은 미·중이 상호 의존하고 있어 중국산 광트랜시버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는 미국 공급망에도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음. 중국 광모듈 업체들이 Lumentum, Coherent의 고속 EML을 조달하는 반면, EML을 생산하는 미국계 업체들은 중국에서 대부분 생산되는 AXT의 InP 기판 공급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음. 실제 중국의 2025년 2월 InP 수출허가제 도입 이후 AXT의 수출허가 발급이 지연되며 공급 불확실성이 커졌고, 타이트한 수급 속 6인치 InP 웨이퍼 가격도 약 250% 상승하는 등 중국의 업스트림 소재 통제가 미국 공급망의 조달 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음을 보여줌
- “ 이를 감안하면 이번 규제 논의는 즉각적인 전면 차단보다는 9월 미·중 정상 회담을 앞둔 대중 압박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올해 2월에도 미국은 중국산 데이터센터 장비 규제를 보류한 전례가 있음. 시행 여부와 범위는 미·중 협상 결과와 미국 내 공급망 부담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높음
- “ 규제의 실제 시행 여부와 별개로, 이번 논의는 미국 데이터센터의 공급망 다변화를 촉진할 수 있어 비중국 광통신 업체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미국 하이퍼스케일러가 공급처를 다변화할 경우 AAOI, Coherent, Lumentum 등에 점진적인 점유율 확대 기회가 발생할 전망
- “ 다만 미국의 규제에 맞서 중국이 InP 수출 통제를 강화할 경우 광통신 산업 전반의 공급 차질이 심화되면서 비중국 업체의 반사이익도 제한될 수 있음. AXT가 글로벌 InP 기판 시장의 약 35%를 차지하는 만큼, 중국이 공급을 제한할 경우 비중국 업체도 EML 등 광원 증산에 필요한 InP 기판 확보가 어려워져 광트랜시버 증산이 제약될 수 있음.
- “ 국내에서는 RF머트리얼즈와 오이솔루션의 중장기 기회가 확대될 전망. RF머트리얼즈는 Lumentum향 광통신 패키지를 솔벤더로 공급 중인 만큼 비중국 공급망 선호 강화 시 기존 벤더 지위가 더욱 견고해질 것. 오이솔루션은 데이터센터용 광트랜시버가 샘플·퀄 단계에 있어 단기 실적 기여는 제한적이나, 공급처 다변화 과정에서 신규 고객 인증과 시장 진입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음

업종투자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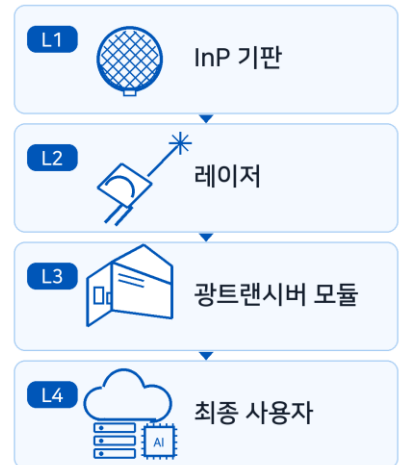
OVERWEIGHT

중국 광트랜시버 업체들의 글로벌 시장점유율



자료: Lightcounting

광트랜시버 밸류체인



자료: 유진투자증권

미국 데이터센터 광통신 공급망의 중국 노출



자료: Serenity (@aleabitoreddit)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3%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4%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3%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6.6.30 기준)